



중국 최고 마술 공연 호남대랄랄라스쿨과 호남대공자학원이 2일 호남대 복지관 랄랄라극장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중국 최고의 마술 및 변검술사 초청 공연을 가졌다. 이번 공연은 오는 7월31일까지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초·중·고교 등을 돌며 진행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간토대학살 당시 광주·전남출신 52명 희생

국가기록원, 명부 공개 강제징용 조선인 학살 9세이하 피살자도 4명

지난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關東)지방에 진도 7.8 규모의 대지진이 일어났다. 이 지진은 도쿄(東京)·요코하마(横浜)의 60~80%를 파괴했다. 지진 다음 날 발족한 야마모토 곤노효에(山本權兵衛) 내각은 흥흥해진 민심을 잡기 위해 조선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내각은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집어 넣었다. 일본인을 습격하려 한다'는 등 유언비어를 조직적으로 유포시킨 뒤 이를 구실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후 일본 자

일본 간토대지진 당시 광주·전남출신 피살자 현황

◇피살자 당시 본적
영암 16명, 무안 14명, 승주 8명
나주 4명, 영광 3명, 장흥 2명
강진·광산·고흥·담양·함평 1명씩

◇피살자 당시 연령
0~9세 4명, 10~19세 4명
20~29세 15명, 30~39세 16명
40~49세 11명, 50~59세 2명

경단(自警團) 등은 죽창·쇠갈퀴·총·곡괭이 등을 이용해 조선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다. 하지만, 누가·언제·어디서 억울한 죽임을 당했는지 등 조선인 학살은 일본 내각에 의해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그로부터 101년 여가 지난 올해 갓난아

기는 물론 일가족 학살까지 자행했던 간토 대지진 당시 일제의 만행이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국가기록원이 2일 공개한 '일정시 과거사 명부' 가운데 간토대학살 당시 학살된 조선인의 이름과 주소, 피살당시 상황을 담은 '일본 진재(震災)시 피살당한 자 명부'를 보면, 광주·전남지역 희생자 수는 모두 52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영암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안 14명 ▲승주 8명 ▲나주 4명 ▲영광 3명 ▲장흥 2명 ▲강진·광산·고흥·담양·함평 1명씩 등이다. 희생자들은 일제강점기 고향을 떠나 일본 간토 지방으로 강제징용돼 일하던 중 지경단 등에 의해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다.

일본인들은 갓난아, 어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자행했다. 피살 당시 연령을 보면, ▲0~9세 4명 ▲10~19세 4명 ▲20~29세 15명 ▲30~39세 16명 ▲40~49세 11명 ▲50~59세 2명 등이다.

이 자료에선 일본 도쿄에서 생활하던 박기○(3)·박지○(5)·박영○(7)·박명○(9) 등 일가족 4명이 모두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들이 피살된 시기는 지난 1942년 5월 2일~7월 8일, 일별로는 5월 6일이 10명으로 가장 많은 조선인이 학살을 당했다. 월별로는 ▲5월 26명 ▲6월 3명 ▲7월 23명 등이다.

피살 일시가 간토 대지진이 일어난 지 19년이 지난 시점인 점을 감안하면, 일본 지경단 등이 간토 대지진 이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이를 명분 삼아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의 조선인들을 지속적으로 학살해 왔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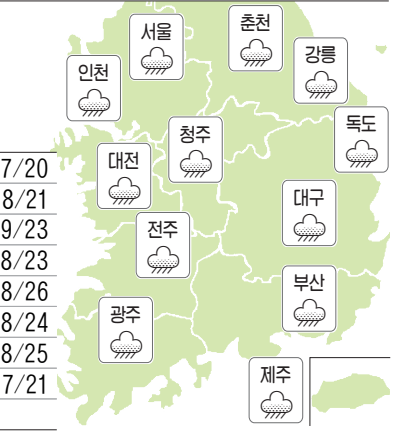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9 해질 10:02
해질 19:42 달뜨기 23:32

미세먼지 '보통'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 있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비	19/23	보성	비	17/20
목포	비	19/23	순천	비	18/21
여수	비	18/21	영광	비	19/23
나주	비	18/23	진도	비	18/23
완도	비	18/22	전주	비	18/26
구례	비	17/21	군산	비	18/24
강진	비	18/22	남원	비	18/25
해남	비	18/23	흑산도	비	17/21
장성	비	18/22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동~남동	1.5~2.5	동~남동	1.0~2.0
남해	앞바다	동~남동	1.5~2.5	동~남동	1.5~2.5
남해	서부	남동	2.0~4.0	동~남동	2.0~4.0

생활지수

식중독	61
운동	20
빨래	2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5:33	17:31	10:53	22:46
여수	00:05		06:10	
	12:06		18:13	

주간 날씨

4(수)	5(목)	6(금)	7(토)	8(일)	9(월)	10(화)
☁	☀	☀	☀	☀	☀	☀
18/25	19/27	18/27	18/28	18/28	19/28	18/28

“일제강제 동원 위로금 받게 해주겠다”

피해자 유족들에 수억원 쟁겨

무안경찰, 일당 5명 적발

자신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면서 같은 처지에 있는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쟁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무안경찰은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법인 대표 백모(61)씨를 구속하고, 공범 이모(63)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달 27일 충남 부여에서 일제동원 피해자 유족 정

모(67)씨 등 21명에게 “회원으로 가입하면 위로금과 미수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한 명당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7만 원씩 101만 원을 받아 쟁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 등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년6개월간 서울·대구·부산 등에 사는 유족들을 상대로 쟁긴 부당이득금은 모두 1억5000만 원. 백씨는 과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관련단체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며, 이 단체에서 2000~3000명 가량의 유족들의 명단을 빼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위법행위’ 자치단체장 감사원 첫 구상권 판정

신정훈 전 나주시장 등 5명 8억7900만원 변상 통보

전직 단체장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확정돼 전직 시장 등이 거액의 돈을 물게 됐다.

2일 감사원과 나주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신정훈 전 나주시장과 유모 전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5명에게 8억7900만 원을 변상할 것을 최종 판정하고 통보했다. 신 전 시장이 배상액의 50%, 유 전 국장 20%, 나머지 과장, 계장, 실무자 등은 각 10%를 변상하게 됐다. 지난 2011년 2월 감사원의 애초 변상 명령은 5명이 똑같이 나눠 변상하는 것이었으나 당사자들의 이의신청 이후 최종 판정은 신 전 시장의 책임이 훨씬 더 큰 것으로 결론났다.

실제로 구상권이 집행되면, 공무원이 아닌 자치단체장이 재임시 행한 위법행위로 변상을 한 것은 처음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상당수 지자체 단체장이 위법이나 잘못된 행정행위로 막대한 현세를 남비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유사 사례도 이어질 전망이다.

신 전 시장은 화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당금과 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모두 12억3000여만원의 국고 보조금 등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관련 공무원들도 집행유예 등 유죄판결을 받아 모두 불명예에 퇴진했다. 이번 사례는 민선 단체장에 대한 첫 구

상권 행사 판정이라 주목된다. 하지만 신 전 시장 등으로부터 변상액을 모두 받아낼지는 미지수다.

나주시가 감사원 결정 이후 신 전 시장에 대한 재산을 추적한 결과 주택 등 재산 대부분이 다른 가족의 명의로 돼 있는 등 사실상 무일푼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사소송 등을 통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변상금 회수는 당장 이뤄지기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나주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련법에 따라 재산 회수에 나설 것”이라며 “당사자들의 이의 신청 이후 감사원에서 위법행위 정도 등을 판단, 변상액 규모가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여성가족부 인정

2014년도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4년 6월 16일(월) 개강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 강 료 : 24만원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 광신교육원(가폭)
※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전 및 혜택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별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출석시간 90% 미만자는 제적처리함.)

■ 제출서류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③ 신분증 사본
④ 사진 2매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교학처 (062)605-1112, 1063

잔여세대 분양중

지리산 노블랜드

산 좋고 물 좋은 **백운산 400고지**

콘도/펜션/별장/요양시설
귀농자, 요양자 10%할인
국유지 필요평수 임대 가능
(산삼, 약초, 신나물, 텃밭 사용)
화재장터, 쟁개사, 화약사, 노고단 근접

분양가격(공용면적 포함)	대출가능금액
18평(28실) 6840만원	18평 3000만원 가능
28평(26실) 1억 640만원	28평 5000만원 가능
56평(1실) 2억 1280만원	56평 1억원 가능

등기이전 및 상담 - 김주현 법무사
H. 010-4451-6686 / 법무사 직접상담

지리산노블랜드 분양 /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주인 직접상담 : 010-2928-0202